

검찰연합일보
모바일 보기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

제 712 호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尹대통령, 엑스포 불발에 부산시민 달래기 가덕도신공항·산은이전 약속

북항 재개발·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추진…“부산, 남부권 거점 도시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시민들의 성원에 사례하고 각종 지원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격

려 간담회를 열고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온 각계 시민 대표와 기업인,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모

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산이 남부권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가덕도 신공항 개항과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의 숙원사업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항 재개발 사업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시민 대표,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부산의 남부권 혁신 거점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에 개항해 남부권 하늘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박 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 송진영 기자



학생·학부모·교원들과 대화하는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 부총리-현장교사 정례소통 학생·학부모로 확대

교육부는 매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원이 참여했던 정례 소통 행사를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9·4 공교유 면춤의 날’ 이후 매주 이주호 부총리가 현장 교원들을 만나 교육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만 들어왔다.

교육부는 이를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함께차담회’로 확대하고 최근 개통한 디지털 소통 플랫폼과 연계해 온·오프라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함께차담회’ 일정과 주제 등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서 확인

“이상민 행보에 동참”…대전시의원 등 19명 민주당 탈당

대전 지역 정치권에서 ‘친이상민계’로 알려진 조원휘·이금선 대전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2명과 당원 등 총 19명이 6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의원과 (탈당의) 뜻을 같이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와 송구한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상민 의원과 함께 정치적 신의를 지키며 같이 행동할 것”이라면 서도 “구체적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 보며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세력을 규합할지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탈당하는 15명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비이재명계 5선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은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 개발당’으로 규정하며 지난 3일 탈당했다.

/ 곽현성 기자

올해 마약사범 2만명 넘어 역대 최다…셋 중 하나 10~20대

특수본 발표…작년 동기 비해 47% 늘어·공급 사범은 83% 증가, 의료용 마약류 엄단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2천39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단속 한 1만5천182명에 비해 47.5%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 사범에 대한 단속이 활발히 이뤄졌다. 전년 동기(3천991명) 대비 82.9% 늘어난 7천301명이 데미를 잡혔다. 전체 단속 인원 중 10대는 1천174명, 20대는 6천580명으로 집계됐다. 10~20대가 전체 마약사범 중 34.6%를 차지했다. 종가세도 뚜렷해 전년 동기(5천41명) 대비 53.8% 늘었다.

특수본은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20대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밀수·밀매·밀조 등 마약류 공급 사범은 7천301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전년 대비 82.9% 급증한 숫자다.

특수본은 “올해 마약사범 수가 급증한 것은 특수본 산하 각 사기관이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결과”라며 “검찰과 경찰, 세관, 국정원 등이 상호 협력해 마약 밀수·유통 사범을 다수 적발 했고 마약류도 대량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등에 합동단속추진단을 편성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해경도 86명으로 구성된 마약 수사 전담팀을 꾸렸고 국방부는 군내 마약 유입을 차단하고 군내 마약 전문수사관을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

대검은 페티던·펜타닐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 문제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의료인이 타인에게 불법 처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셀프 처방’한 뒤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유통한 경우 초범이라도 사안이 무거우면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향후 특수본은 산하 지역별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강화하고 해외 도피 마약사범의 강제송환을 활성화한다. 현재 전국에 3개 밖에 없는 중독재활센터를 14개 지역에 추가 신설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검·경찰청·서울시는 이날 클럽·유흥주점 내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이 마약류 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의 상호와 소재지를 공유하고 기관 간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특수본을 설치했다. 대검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조규돈 기자



채권도 신한투자증권

변동성 높은 투자환경
주식도 꺼려지고, 예금도 꺼려지는 시장상황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목할 만한 투자 트렌드, 채권!
국공채, 우량채권도 신한투자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알파 앱
온라인에서 쉽고 간편하게
채권 매매하세요

*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채권>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파산·부도 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존법감시인 심사필 제23-0133호(2023년 2월 3일 ~ 2024년 2월 2일)

신한투자증권

상담전화 : 1588-0365 | www.shinhansec.com

尹대통령, 방통위원장 후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 지명

김홍일 “공정하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이 각각 내정됐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려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리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소년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헐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어려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며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법률적 전문성과 합리적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 대내외 신망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오석환 내정자에 대해선 “교육부 학폭 균질 추진단장 및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친 초중등 교육 정책 전문가”라며 “기획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으며, 30년간 축적한 교육 전문성과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교원 회복과 학폭 균질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완 내정자에 관해서는 “제2연평해 전 당시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부정장으

로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서도 전사한 정장을 대신해 고속정을 지휘함으로써 북방 한계선을 사수한 국가적 영웅”이라며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일 후보자는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출국 전 추가 개각 일정에 대해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 송원기 기자



성명 발표하는 김용진 대표

뉴스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관여 의혹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신씨는 1월9일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지난 9월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 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

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당시 뉴스타파 대표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육성이 담긴 이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책임론의 초점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씨와의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등 언론을 통해 허위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본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김 대표도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검찰 수사가 이뤄

/ 최형철 기자

文정부 3총리, 총선 앞두고 연쇄회동…비명연대 구심점 되나

이낙연·정세균·김부겸 각각 만나…“당이 강성당원에 휘둘려” 공감대



사진 왼쪽부터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연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거물급 인사들의 이런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이들 ‘3총리’가 비명(비이재명)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론되는 제3지대론이 더 힘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시사했다.

6일 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김 전 총리는 최근 두 달여 사이에 각각 일대일로 만났다.

다 같이 모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각 자리에서 현재 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개발(개혁의 땅)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 층에 당이 휘둘리고 있다는 걱정이었다고 한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와 두 차례 만났는데, 한 번은 문재인 정부 1

기 내각 모임이었고, 이후에는 별도로 회동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전 연합뉴스 TV와 인터뷰에서 “김 전 총리와 단둘이 만 얘기한 적이 있었다”며 “당에 대한 걱정을 나눴고, 상당 부분 문제의식이 일치

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이달 초 따로 만났으며 역시 당내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만남은 이보다 앞선 지난 6~7월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갓 돌아온 시점이었다.

현 지도부는 친명(친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해 이들 3총리는 구주류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들은 비명계 주축인 친문(친문재인)·친나(친이낙연)·친SK(친정세균) 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연대가 가시화할 경우 당내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 공천이 그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현시점에선 ‘3총리 연대설’이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해” 때가 되면 말하겠다”, “제3세력에 공감한다” 등 적극적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구체적 발언을 아끼고 있어서다. 특히 정 전 총리는 연대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만났을 때 신당 창당 등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의원들이 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 대한 걱정 정도만 나눴다”고 전했다.

친명 지도부도 이들의 연대와 더 나아가 신당 창당 가능성 등에 회의적이다.

김영진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분들은 민주당을 제일 많이 걱정한다는 것까지는 연대의 고리가 있는데 신당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3총리 연대설은 이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띠우는 것 아니냐”

며 “직접 확인해봤지만, 다른 두 분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단 지도부는 당내 통합 행보에 더 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전 대표의 작성발언과 맞물려 당내 계파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더 고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배제가 아닌 단결과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단합 메시지를 발신한 데 이어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이 전 대표 출당 요구 청원을 삭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김영호 기자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

“Hello 미래!”

기다리기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될 미래산업
KDB산업은행이
키워가겠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산업은행

‘지역인재, 인서울 대신 지방대로’…11일부터 교육발전특구 공모

1차 시범지역 공모 결과 내년 3월 초 발표…2차 공모 내년 5~6월



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포포먼스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정주 지원 체제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가 다음 주 시작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 지역 추진 일정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교육받은 우수 인재들이 소위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일자리를 잡아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는 우선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우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구 시범지역 공모는 여러 지자체에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공모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되고,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추가 지정 결과는 7월 말 나온다.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단위는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역시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으로 나뉜다.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공동으로 제출한 특구 협약과 10쪽 내외의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구위원회는 운영기획서를 검토해 특구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등 사업계획의 우수성(40점), 지역 발전전략과 교육혁신의 연계 여부 등 지정의 합목적성(20점), 지역 참여기관 간 협력체 구성의 효율성 등 연계·협업의 적절성(20점)과 재정 계획의 적정성(10점), 성과관리의 체계

성(10점) 등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3년으로, 시범 운영 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선으로 정식 특구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지역의 구체적인 모델이나 지정 개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상향식’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계에서는 특구로 지정될 경우 초·중·고 분야에서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가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미국형 치터스쿨’과 같은 지역 고교가 나오거나 지역별 상황·특성·요구 등을 바탕으로 한 자율형 공립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도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선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의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가 실현될 수 있다.

교육부는 특구 시범지역이 요구하는 교육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상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시범지역당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부산 북부 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부총리는 특구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인 자율형 공립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글로컬대학 등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

/ 이영찬 기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당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 전담경찰관도 증원

교사 학폭 업무 부담 경감하고,
공정하게 사안 처리

SPO가 학폭 사안 조사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SPO 증원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유 정책위의장은 “증원 방향은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현장 여건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당정은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 정책위

의장은 “당정은 교사의 학폭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정원 기자

‘카카오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검찰 수사에 윤정희도 참고인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추적 중…대검서 인력 지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도 살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5일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과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2020년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200억원에 사들였는데, 자본금 1억원에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회사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증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인수 당시 카카오엔터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한다. 현재 윤씨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향후 수사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들



윤정희 배우

여다보던 중 이같은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2일에는 카카오그룹 판교 아지트 사무실 등을 암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배임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두 사건의 범행 일시가 상당히 달라서 현재로서는 관련성 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씨가 SM 주식을 대량 보유했던 점도 수사하느냐는 질문에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지난달 송치 된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김 의장의 말을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언제하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서 아직 송치하지 않은 분도 있어서 관련된 증거물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제적으로 수사 일정에 맞춰 결론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도주 중인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 이모씨에 대해 “검거를 위해 대검찰청에서 인력을 지원받았고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된 가담자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주가조작 세력 8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인도피를 도운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양희진 기자

이대서울병원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 내성 강해”

코로나19·독감 등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 중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이코플라스마 감염병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국내에서는 3~4년 주기로 유행한다. 앞서 국내에서 마이코플라스마 감염병은 2019년 한 해에 1만3천 479명이 입원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해 주요 도시의 소아과 병원이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급증한 중국 내 호흡기 환자는 기존에 알려진 흔한 병원체에 감염된 것으로, 특히 양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이코플라스마 감염병의 증상은 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으로 감기와 비슷하나, 약 3주가량 지속해 대개 일주일 정도 앓는 감기와 차이가 있다.

/ 박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공정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으로
만들어 갑니다.**

www.nhis.or.kr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소득을 확인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h-well
국민건강보험

이준석 “이낙연, 온건한 민주당 인사…생각 들어보고 싶다”

“아직李 만날 계획은 없어…난 김부겸도 싫어하지 않아”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낙연 전 대표와 소통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것은 부동산 등 여러 정책에서 신뢰를 못 받았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이 좀 다르다면 그런 걸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보수 쪽에서 보기에도 온건한 민주당 쪽 인사”라며 “이낙연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은 내가 싫어할 이유도 없고, 긍정적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니 이낙연 대표가 밝힐 기회도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에 대해선 “같이 할 생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달 27일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공언하고, “(신당) 마음이 1%씩 올라간다는 것은 방송용 멘트고, 실제로 준비는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시작한 신당 지역구 출마 희망자 모집에 대해선 “지금까지 870명 정도 접수했다”며 “20~30분 정도 출마해

도 굉장히 괜찮은 스펙이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만큼 잘하겠다 싶은 사람이 3~4명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례대표제가 병립형이나 연동형이거나에 따라 신당 추진 가능성이 달라지느냐 묻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라며 “신당은 권역별 병립형이 연동형보다 의석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극적 화해 가능성에 묻자 “화해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들을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본인들이 가해자라는 인식 자체도 없는 것 같고, 학교폭력을 했다는 인식도 없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 송유영 기자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회의

‘병립형 회귀’ 불 지피는 野지도부 대선공약 파기 ‘딜레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총선용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 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병립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게 주류 층 주장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 문제가 계파 갈등의 불씨라는 점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상적 주장으로 (총선을)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고 말하면서 가시화됐다.

이후 주류 층은 이런 ‘병립형 회귀 필승론’을 서서히 피우는 모양새다. 흥의표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라며 “우리 의원들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렸다. ‘대선 때 우리가 정치 개혁한다고 한 약속 다 지키면 3선 연임 금지까지도 다 지킬 거냐’고 물어봤다”고 했다. 그는 정

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과하며 복귀했던 일화를 활기차면서 ‘사과하고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게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단이 사실상 없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기정사실로 한 만큼 ‘차악’이 필요하다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친명(친 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게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

이된다. 문제는 대선 공약 파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전날 입장문에서 “지도부의 태도는 이재명 민주당의 일관된 반민주적 태도이자 정치 명분과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당내 비판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에서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진보 진영 시민단체 등이 공약 파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도 큰 부담으로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의견이 워낙 엇갈리는 가운데 서둘러 결론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탓이다.

/ 최해성 기자

특권 내려놓으란 혁신위 말에
부응…‘방탄’ 논란 이재명 겨냥한듯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

을 대상으로 공천 신청 서류를 받을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 반기로 했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직을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당 혁신위원회는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혁신안을 당지도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혁신위 말에 부응해 오늘 결정한

것”이라며 “혁신위에서 여러 좋은 제안을 많이 해줬다. 우리가 그것을 경청하고 숙고해 그것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기에 대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관위 규모에 대해선 “10명 내외가 될 것 같다. 대략 3분의 2 정도가 원외 인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원장 후보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번 선거는 민생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한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민석훈 기자

홍익표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유가족협의회 국회 농성장 방문…“예산안 고려해 8일은 확신 못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농성장 찾은 홍익표 원내대표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에 특별법을 상정·처리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8일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는 할 생각”이라면서도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처리에 대해 답을 주지 않은 상태여서 확신 있게 그날 통과한다는 말을 못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논란이 있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특별법 처리 자체를 안 도와준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8일은 조금 유동적이지만 이달 임시국회 안에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여당이 특별법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수사, 조사 관련 권한을 제외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며 “협의는 계속해보겠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등을 활용해서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농성장에 있던 유가족 유형우씨는 “지난 400여일이 어제같이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1년같이 느껴진다”며 “제발 하루 빨리 유가족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홍 원내대표에게 호소했다.

/ 서정미 기자

“전북 자존심 되찾자”…정동영, 정치적 고향 전주 출마하나

‘돌아온 탕아’를 자처하며 지난 총선에서 전주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재도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 전 장관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병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초선, 재선 모두 전국 최다 득표의 영광을 주셨고 제가 평생 깊지 못할 빚을 지고 있다”면서 “출마 선언을 한다면 전주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등을 통한 전주시민의 민심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정동영을 사용해야겠다는 민심이 있다면 출마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정계 입문 후 첫 선거였던 1996년 15대 총선 때 전주병에서 전국 최다 득표율로 당선된 데 이어 16대 총선에서 재선 고지에 올랐다. 2007년 17대 대선 패배와 2008년 18대 총선 낙선 등 시련을 겪고서 출마한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도 당선됐다.

그런 그가 서울 강남과 관악을에서 두 번의 낙선 뒤 20대 총선에서 전주병으로 돌아왔으나 ‘패배한 제1야당의 대선 주자가 야당의 분열을 등에 업고 너무 쉽게 돌아왔다’란 싸늘한 시선이 팽배했다.

/ 박병호 기자

KB금융그룹 |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금융을 넘어 환경까지 KB증권이 함께 합니다

CHANGE OUR LIFE

**Change our life
플로깅!**

**깨비증권 그린로드
(도심 숲) 조성!**

**자원순환 및
탄소저감 시행!**

**'22 양양 인구해변
'23 부산 해운대**

**'22 난지 캠퍼장
'23 천왕산 캠퍼장**

**'22 제주 푸른컵(공유컵) 제작
'23 사내 폐가전 회수, 재활용**

*** KB증권**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베트남 도주 MZ조폭 검거

불법 인터넷 도박장 운영…압수품서 ‘전국회’ 존재 드러나

충남 논산 지역 조직폭력배이자 2002년생 MZ조폭 모임인 ‘전국회’ 소속으로, 각종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20대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논산 조직폭력배 A(21)씨를 베트남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1월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 21개 폭력조직에서 2002년생 조직원들이 결성한 MZ조폭 모임 ‘전국회’에서 활동하기도 한 A씨는 앞서 지난 7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으로 다른 MZ조폭들과



‘전국 파이팅’ 구호 외치는 전국회 조직원들과 A씨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하는 논산 지역 조직원들을 불잡아 압수품을 분석하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전국회’ 존재를 파악해 MZ조폭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전국회에서 연락망의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그 사이

A씨는 “내일 출석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 도주를 도운 지인 4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인접국에도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호찌민 공항에서 검거돼 지난 2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로써 경찰은 전국 MZ조폭들 38명 중 37명에 대한 소재 파악과 검거를 마쳤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이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속한 논산 지역 조직폭력배의 20대 조직원 33명에 대해서도 인터넷 도박장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 박윤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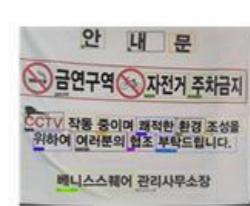


<불법 현수막 인명사고>

<불법 현수막 설치현장>



<불법 현수막 탐지>



<현수막 내용 인식>



<탐지 결과 알람>

불법 현수막 탐지 개념도

난립한 불법 현수막 탐지에 AI 기술 적용된다

공공 폐쇄회로(CC)TV로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을 탐지하고 내용을 분석하는데 시각 지능 기술이 본격 활용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경남 사천시와 경북 경산시에서 자체 개발한 시각 인공지능(AI) 기술인 ‘딥 뷰’(DeepView) 기반 CCTV를 활용한 현수막 탐지 기술을 우선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스쿨존, 교차로, 사거리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원을 자주 발생시켜 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즉시 대응이 어려웠다.

특히 정당 현수막은 신고 의무와 장소 제한이 없어 우후죽순 설치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자체에서 철거했다고 보고한 정당 현수막 무게만 1천300t이 넘고 대부분이 게시

기한 15일이 지난 불법 현수막으로 나타났다.

ETRI 연구진은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현수막 설치 영역 탐지뿐 아니라 대형 시각언어 모델을 활용한 문자인식 등을 통해 현수막의 설치 시점과 내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지자체 CCTV 영상 관제 시스템과 연동해 도심의 불법 현수막을 탐지하는 동시에 내용을 전산화할 수 있어 불법 현수막 설치를 예방하고 예산 및 행정력을 절감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TRI는 사천시와 경산시에 우선 적용해 기술을 검증하고 지자체 옥외광고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와 협력해 전국 지자체에 관련 기술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노건우 기자



‘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3)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정 변호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별도 재판을 열어 국민참여재판을 허가할지 살펴보기로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의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 윤형민 기자

재판부는 내달 10일 별도 재판을 열어 국민참여재판을 허가할지 살펴보기로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의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신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3분께 경북대

유도 보였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줄곧 고개를 숙이고 땅에 내려다봤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처상에서 도주처사로, 위험운전처상에서 위험운전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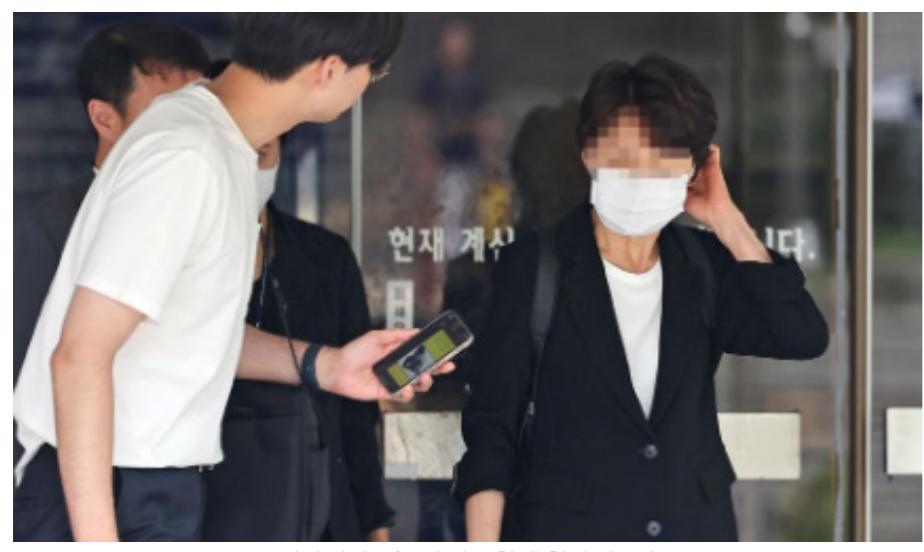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신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3분께 경북대 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 이현수 기자



공수처, ‘수억 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

영장 기각 4개월 만…이상영 관련 뇌물 혐의는 또 제외



법정 나서는 ‘수억 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 규 부장검사)는 5일 수사 무마 대가로 거친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 수사해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

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김

경무관이 거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도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일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일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

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다면 공수처는 앞선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회장 관련 혐의는 제외했다.

대신 추가 수사를 통해 김 경무관이 A

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보강해 이날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5번째다. 앞서 청구한 4건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 강석호 기자

재판부는 내달 10일 별도 재판을 열어 국민참여재판을 허가할지 살펴보기로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의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도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신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3분께 경북대

유도 보였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줄곧 고개를 숙이고 땅에 내려다봤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처상에서 도주처사로, 위험운전처상에서 위험운전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국토의 입체화로 국민 안전과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트윈으로 리허설 중

UX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쟁 발발 두 달…“하마스 3만병력 여전히 존재”

“북부서도 작전 안 끝나…터널 최소 3분의1 온전”



하마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과 하마스 궤멸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하마스의 병력은 여전히 존재해 이스라엘의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스라엘이 전쟁 발발 약 두 달만인 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남부에서 본격적인 대규모 지상전에 나섰지만, 가자지구 북부에서도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스라엘 정부 안보 당국자 8명을 인용해 하마스 무장세력 최소 5천명이 사망했으며 약 3만명으로 추정되는 하마스의 군사 조직은 아직 가자지구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익명을 조건으로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의 작전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전했다.

가자 북부의 가자시티 대부분이 공습으로 인해 파괴됐지만, 이스라엘 지상군이 아직 가자시티 내 하마스의 주요 근거지 중 일부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전언이다.

이스라엘 군 정보 장교 출신으로 텔아비브대의 팔레스타인 연구 포럼 책임자인 마이클 밀슈테인은 가자시

티의 약 3분의 1이 이스라엘군의 통제 밖에 있으며 일부 지역은 높은 수준으로 노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시티에서 벌어질 전투가 “매우 힘들 것”이라며 하마스가 모든 기반 시설(인프라)을 잘 준비해놨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7일간의 일시 휴전 기간 이스라엘 측 인질을 넘겨주기 위해 하마스 무장 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자시티 내에 여전히 하마스 세력이 존재하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더욱이 일시 휴전이 끝나기 전인 지난달 30일 만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활용한 위성 사진을 보면 가자지구 북부 자빌리야와 세자야야에서 이스라엘군의 존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WP는 전했다. 하마스의 전체 무장 대원 수는 2만7천~4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하마스 측은 사망 대원의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에게는 하마스 대원을 더 사살하는 것보다 하마스 최고 인사인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 목표다.

현재 신와르를 비롯한 하마스 최고위급 인사들은 전

선에서 멀리 떨어진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유니스 아래 땅굴에 몸을 숨긴 채 전쟁을 지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지상전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혀온 하마스 지하터널의 입구를 800여 개 발견했고, 이 가운데 500여개는 폭파하거나 봉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컨설팅업체 르베의 이스라엘 현지 정보 책임자 마이클 호로비츠는 이스라엘이 터널 시스템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터널마다 얼마나 많은 수직 통로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터널은 일회성 공격을 위한 소형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터널들은 수심 3m 깊이로 더 큰 지하 터널망에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르베은 가자지구 내 터널 중 3분의 1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여전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해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는 점도 하마스가 여전히 존재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마스의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은 지난 2일 텔레그램을 통해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를 향해 로켓을 쏘다고 밝혔다. 텔아비브에서는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이날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 로켓 여러 발이 발사됐고 한 발이 아수케론의 주거용 건물에 떨어졌다.

호로비츠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생산되는 하마스의 로켓 전력을 완전히 파괴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실제로 로켓 제조 공장을 찾아 재료 조달 과정을 막아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5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공중·지상 작전을 통해 하마스 부대 지휘관 전체의 약 절반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복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 임승환 기자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한 존 박 브룩헤이븐 시장

美 조지아주 첫 아시아계 시장에 한인 존 박 시의원 당선

2017년 6월 ‘평화의 소녀상’

건립 주도적 역할

미국 조지아주 브룩헤이븐 시장 선

거 결선 투표에서 한국계 미국인 존 박(한국명 박현종) 브룩헤이븐 시의원이 아

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됐다.

6일 동포 사회와 애틀랜타 저널 컨스

티튜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박 의원

은 5일(현지시간) 실시된 결선 투표에서

58.6%(3천564표)를 득표해 41.4%(2천

520표)를 득표한 로렌 키퍼 후보에 승리

했다.

박 시장은 조지아주의 첫 아시아계 시

장이며 한국계 첫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박 시장은 지난달 진행된 1차 투표에서

도 키퍼 후보를 따돌리고 43%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지만,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해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박 시장은 1970년대에 가족과 함께 미

국에 이민했다.

그는 에모리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IBM에서 기술 컨설팅 업무를 했다.

이후 미국 방산 회사 노스롭그루먼에

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의 계

약 업무를 담당했고, 국가적인 질병을 감

시하는 기술 컨설턴트로도 일했다.

그는 2014년 보궐 선거로 처음 시의원

에 당선됐고, 9년간 3선 시의원을 지냈다.

2017년 6월에는 브룩헤이븐 시 공원 내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소녀상은 2021년 애틀랜타 총격 사건 당시 희생자 추모식과 현화식이 열리

는 등 미국 현지 여성 인권 상징으로 주목

받고 있다.

/ 강효성 기자

중학교 구내식당 양념통에서 쥐 나와…또 불거진 식품위생 논란

입으로 양고기 발골, 맥주원료 방뇨 등 잇단 논란에 불안감 확산



직업학교 구내식당의 양념통에 들어 있는 쥐

양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과 공안국 등 관계 당국은 사건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누리꾼들은 “중국에 아직도 쥐가 많다는 사실을 구내식당 음식을 보고 알았다”거나 “학교 측이 유일하게 잘한 일은 그나마 빠르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지난 6월 장시성 난창의 한 직업학교 구내식당 음식에서도 쥐머리가 나온 바 있다.

학교 측과 난창시 당국은 의혹이 제기되자 처음에는 쥐머리가 아니라 ‘오리목’으로 확인됐으며, 식품 안전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확산하자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꾸려 진상 조사한 뒤 쥐 머리가 맞는다고 인정했다.

/ 서현승 기자

인도 남동부에 사이클론 미차웅 상륙…“사망자 17명으로 늘어”



인도 남동부 지역에 상륙한 사이클론 미차웅(Michaung)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7명으로 늘어났다.

6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시속 최대 11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미차웅이 전날 오후 안드라프라데시주 해안에 상륙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들이 뿐이고 전선 및 통신선이 끊어졌으며 수만㎡ 면적의 농작물이 쓰러졌다.

안드라프라데시주에서는 주민 약 9천500명이 학교와 정부 건물에 마련된 구호캠프로 긴급대피했다.

앞서 미차웅이 접근하던 지난 3일부터 안드라프라데시주와 인접한 남부 타밀나두주의 주도 첸나이 및 주변 지역에도 폭우가 내려 거리가 침수되고 수천 채의 주택과 자동차들이 물에 잠겼다. 첸나이에서는 6만1천여명이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6명이 사망했다.

지금까지 타밀나두주와 안드라프라데시주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최소 17명으로 늘어났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인도 기상청은 북진하던 미차웅이 전날 저녁 풍속 시속 55~85km로 세력이 약화했다면서 하지만 6일에도 영향을 미쳐 안

드라프라데시주 북부 해안과 텔랑가나주, 오디샤주 남부지역에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차현우 기자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이 되도록

고객 한 분 한 분의 모든 하루,
나아가 푸른 자연까지
모두가 행복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ESG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의 ESG 경영

PEOPLE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PLANET 글로벌 기준의 친환경 경영 생태계 조성 동참
PROSPERITY 디지털 혁신 기반 지속가능 투자 GOVERNANCE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조성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지금이 제철이다



IBK기업은행
IRP

올해가 가기 전! 평생 수수료 0원

달콤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평생 0원

i-ONE 뱅크, 인터넷 뱅킹으로 신규가입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6.5%,
148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금리 퇴직연금 ELB 출시!

원리금 보장,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손실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23-04295호(2023.11.23 ~ 2023.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462호(2023.11.17) [유효기간: 2023.12.31]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66-2566)로 문의 ※ 개인형 IRP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해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5천만원까지(운용회사별 합산) 예금자보호 ※ 개인형 IRP에서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 투자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 개인형 IRP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향후 변동 가능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 유의사항> ※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는 원금지급형으로 투자자 성향은 저위험(안정추구형)으로 분류 ※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는 개인형 IRP 계좌에서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으로만 예약매수 가능 ※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 자산가격 변동, 발행회사 신용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등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 발행사 BK 투자증권(AA, 2023.8.29, NICE 신용평가)의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 청약의 권유는 (예비·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름 ※ 수익률은 조건 충족 시 최대 수익률에 불과, 수익률 달성 성비보장, 투자전 확인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원금손실 가능 ※ 원금 부분 지급이나 원금지급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시 최대 손실율 초과 가능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GTX-D·E·F 추진방안 이르면 올 연말 발표”

與김희국 “GTX 노선 발표했다가 안하면 국민기만”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F 노선 추진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한다. 이때 시종점과 주요 환승역, 개략적인 사업비가 공개된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TX D·E·F 노선 신설안에 대해) 현재 기획연구를 하고 있고, 빠르면 연말, 늦어 도 내년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번 발표는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가능한 수준, 사전타당성조사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사업을) 재정으로 할지, 민자로 할지는 추후 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TX 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은 윤석

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경기 화성 동탄역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D·E·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GTX 같은 기반시설을 필요한 시기에 제때 구축하려면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부는 민간이 투자하겠다는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고, 민간 참여 의사가 없는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정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국민이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수익성이 없는 구간은 민자 유치를 하려고 달려들고, 수익성 있는 구간은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면 전체적인 철도망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며 “GTX D·E·F 사업 발표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TX 노선 발표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발표했다가 안 한다면 희망 고문이 아니고 국민 기만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에 대해선 이달 중 노선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노건우 기자



PC방 게임 스타크래프트

네이버, 게임 스트리밍 출진 채비 트위치, 2월 한국 철수

네이버가 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의 비공개 시험 서비스를 출시했다.

프트와 리그오브레전드(Lol·롤) 경기로 구성됐으며 직원 380명이 플레이어로 참여했다.

네이버는 오는 19일 공개 시험 서비스를 출시한 뒤 내년 정식 서비스를 내놓고 트위치와 아프리카TV[067160]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 계획이다. 트위치가 망사 용료 부담을 이유로 내년 2월 한국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어서 네이버 게임 스트리밍이 대안으로 급부상할지 주목된다.

6일 IC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직원들을 대상으로 게임 스트리밍인 ‘치지직’(CHZZK·가칭)의 비공개 시험(CBT·클로즈드 베타 테스트) 서비스를 개시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9월 ‘치지직(chzzk)’의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이용 약관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오는 8일까지 나흘간 게임 스트리밍이 이상 없이 구동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 대항전을 중계한다. 게임 대항전은 스타크래프트를 거쳐 오는 19일 게임 스트리머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시험(OTB·오픈 베타 테스트)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황순길 기자

“보툴리눔 특신 경험자 10명 중 7명, 효과 감소 경험…내성 의심”



문옥륜 보툴리눔 특신 안전사용 전문위원회 위원장

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위해관리협의회 산하 ‘보툴리눔 특신 안전사용 전문위원회’가 보툴리눔 특신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형성하고자 열었다. 흔히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특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쓰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최근에는 편두통, 다한증 등의 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제영 암구정오라를 피부과의원 대표원장은 보툴리눔 특신 시술 경험이 있는 국내 20~59세 1천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6%가 연 2회 이상 보툴리눔 특신을 맞고 있었으며, 51%는 한 번에 두개 부위 이상을 시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툴리눔 특신 시술 효과가 떨어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74%에 달했다. 이들이 모두 내성을 실제로 경험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이전에 비해 특신의 효과와 지속 기간이 짧아지는 등 현상이 발생한 것이기에 내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답자 중 84%는 특신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지인과 SNS 등 비전문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로부터 내성을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들었다는 환자는 전체의 26%에 그쳤다.

/ 이경민 기자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유지할까…서울시 20일 공청회



다음달 20일,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공청회

을 제출해도 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정지하는 정책적 실험을 시행했다.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량은 평상시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대를 기준으로 7만 5천 619대이다.

강남 방향을 면제한 1단계(3월 17일~4월 16일)에서는 7만 9천 550대로 5.2%, 양방향을 면제한 2단계(4월 17일~5월 16일)에서는 8만 5천 363대로 12.9% 증가했다. 혼잡통행료를 재징수한 5월 17일부터는 면제 전과 비슷한 7만 5천 270대로 통행량이 다시 줄었다.

시는 9월 22일~10월 22일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한 의견을 묻는 온라인 엔보팅 투표도 시행했다. 정책실험과 온라인 투표 결과를 토대로 시는 내부적으로는 통행료 징수를 유지하기로 기탁을 잡았다. 통행료 2천 원을 유지할지는 미정이다.

시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 권도훈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친환경 세상을 위해,
NH가 손을 보탰습니다**

ESG 경쟁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NH농협금융은 그 속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전시적 친환경 활동은 물론, 친환경 기업에 투자·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사회적 역할을 다합니다. 농업, 농촌 지역사회에서 삼성의 이념으로 성장해온 대생적 친환경 그룹인 NH농협금융은 이제, 이시아를 대표하는 친환경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

ESG 경쟁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NH농협금융은 그 속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전시적 친환경 활동은 물론, 친환경 기업에 투자·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사회적 역할을 다합니다. 농업, 농촌 지역사회에서 삼성의 이념으로 성장해온 대생적 친환경 그룹인 NH농협금융은 이제, 이시아를 대표하는 친환경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금융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자산운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소비자에 7만원 배상”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 손해배상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 구원순형 부장판사)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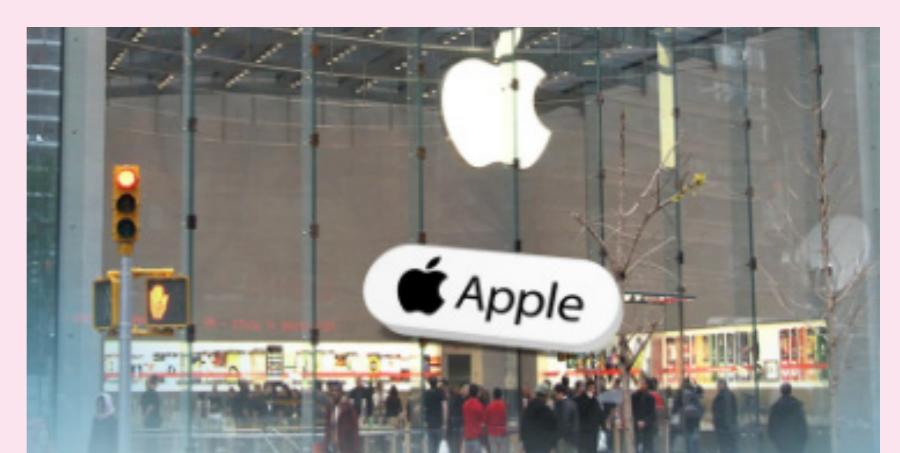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 2천여명이 소송을 내 폐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았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고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업데이

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애플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남정희 기자





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원하신다면?

★ **양방향 문자** 하나면 쓰던 사무실 번호로
고객과 소통을 더 편리하게!

문자도 사진도 실시간으로 주고 받고, 받은 답변은 알아서 데이터로 정리까지!
이제, 사용하던 사무실 번호 그대로 손쉽게 문자업무 하세요

메시징DX 양방향 문자 서비스



양방향 문자 | kt enterprise

KT 화선 사용자 대상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080-258-0303
enterprise.kt.com

수원특례시 포함 240여개 지자체 및 기업 도입 중 (2023.11월 기준)

kt

‘어? 스스로 가네’…눈길 끈 서울 심야 자율주행버스 첫 운행

“느리지만 신기”·“급정거 멀미”…“또 탄다” 일단 ‘합격점’에 개선과제도

“버스가 좀 느리긴 한데 스스로 운전한다니 신기하죠. 일이 늦게 끌나서 매번 오래 기다렸다가 N(나이트·심야)번 버스를 탔는데 집에 가는 노선이 하나 더 생겨서 좋아요.”

4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합정역 버스정류장에 처음 보는 ‘심야 A21’이라는 ‘이름표’를 단 버스가 등장했다. 늦은 밤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 5명이 기대와 호기심 섞인 표정으로 차에 올랐다.

이 ‘뉴페이스’는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심야 전용 자율주행버스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마포구 합정역에서 종로구 동대문역을 잇는 심야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대학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해 심야 이동 인구가 많은 구간을 오간다.

미국 등에서는 야간에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가 운행한 사례가 있지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기능을 맡은 심야 전용 자율주행버스를 정기 운행한 사례는 세계 최초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자율주행버스 2대는 오후 11시30분 합정역과 동대문역에서 각각 출발해 70분 간격으로 중앙 버스전용차로 구간 9.8km를 순환한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후 11시30분~다음 날 오전 5시10분이며 운행 구간 내 40개(편도 20개) 중앙 정류장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버스는 모든 승객이 자리에 앉아 안전



심야 자율주행버스 첫 운행

벨트를 매자 자율주행 모드로 정류장을 떠났다.

앞서 ‘만석’ 상태에서 버스에 오른 시민 2명은 운행을 지원·점검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있던 ‘시험운전자’가 안전상 이유로 입석은 금지되니 다음 버스를 타달라고 양해를 구해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자율주행버스는 시내버스와 동일한 규칙으로, 현대차 일렉시티를 개조한 대형 버스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 설치, 입석금지, 당분간 취객 대비 및 버스의 완전한 정차 뒤 하차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안전요원과 시험운전자 추가 탑승(2명) 등 안전대책이 적용됐다.

버스 출발과 함께 “서울시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차량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인 만큼 옆 차로에선 택시와 시내버스가 속도감 있게 지나갔지만, 자율주행버스는 앞선 차량과의 거리를 조절하며 30~40km/h의 속도를 유지했다.

버스는 홍대입구역에서 신촌역으로 이어지는 커브 구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회전했다.

이날 버스에 함께 탄 유진수 서울대 기계공학과 연구원은 “커브 구간에서는 곡률을 고려해 감속하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버스 평균 속도는 40km/h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버스를 타기 위해 종로구 명륜동에서 합정역을 찾았다는 대학 휴학생 김예린(21)씨는 “처음에는 신기해하다가 중간 구간부터는 ‘그냥 일반 버스를 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급정거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어 멀미가 났는데 그 부분만 개선된다면 일반 버스와 차이 없이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와 함께 버스에 오른 대학생 길성호(27)씨는 “승차감이 조금 더 부드러웠다면 좋았겠지만 일반 버스를 타도 급정거하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씨는 “다만 중간에 이대역에서 서대문역까지 버스 내 모니터에 현재 위치와 신호등 표시가 잘못 표시됐는데 이게 실제 운행이랑 연동되는 건지 모니터에만 잘못 뜬 건지 모르겠다”며 “안심하고 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보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율버스의 ‘불청객’인 취객에 대한 우려를 표한 시민도 있었다.

회사원 조범상(32)씨는 “버스 내 모니터에 현재 주행 속도나 센서로 인식되는 다른 차량의 정보가 떠서 흥미로웠다”면서 “평소 야근이 잦아서 오전 0시 넘어서 N 버스를 탈 때가 많는데 심야 A21번이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면 기다렸다가 타겠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심야 A21번 버스를 당분간 무료로 운영하면서 운행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나아가 운행구간 연장과 함께 도심과 시 외곽을 연결하는 장거리 운행 자율주행버스를 정규 노선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이정수 기자



고위로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 일당

“이걸로 구속되겠어요?”

자신만만한 10대 보험사기 일당

충남 천안에서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19)씨 등 주범 2명과 공범 10명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2004~2005년생으로 고향 친구 사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북구 불당동과 두정동에서 13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주범은 보험금 대부분을 가져가고 일부만 공범들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양선을 침범하거나 일방통행로에 길을 잘못 든 차량만을 노려 사고를 냈다.

접촉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소위 ‘명당 자리’에 차를 대기시켜 놓기 위해 이들은 사고 지점을 여러 차례 배회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비슷한 사고가 특정 지점에서만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은 사고 지점

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일당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들 대부분은 무직 상태로 사기 등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편취한 보험금은 대부분 유동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 등이 다른 공범들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에게 “내가 아는 형이 100건 넘게 (보험사기를) 했는데 안 했다고 잡아떼니까 수사 못 했다고 하더라”면서 입막음했다.

공범들이 자백한 후에도 A씨 등 주범은 경찰 조사에서 “법은 내가 잘 아는데 이걸로 (구속) 되겠어요?”라며 의기양양한 모습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공범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 상당수를 돌려받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A씨 등 주범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혼진욱 기자

소방력 낭비 없게…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오작동 방지 기능 의무화



담양소방, 추석 대비 전통시장 화재 예방 활동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감지기의 오작동 방지를 위해 지동보정 기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화재취약 지역으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2018~2022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5건으로, 28명이 다치고 820억원 재산피해가 났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화재 위치를 감지해 시장 상인들과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화재알림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떡이나 튀김 등 각종 음식점이 밀집한 전통시장의 특성상 끄러운 수증기(스팀) 및 열기로 인한 감지기의 잦은 오작동은 소방력 손실로 이어졌다.

이번에 마련한 화재안전 성능기준은 화재알림설비 감지기에 자동보정 기능을 의무화하고, 관계인의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원격관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전통시장의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비화재보(오작동)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손현정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검찰 수사 상황 공개하라”

진상 규명 위한 독립 조사기구 설치 요구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 “검찰 수사 진행 상황 공개하라”

다.

유가족협의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

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져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 김유정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내 재산 내 뜻대로
상속하고 싶다면?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상담 가능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지금 바로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보세요!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 365일 24시간 언제나 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 1566-8004

리빙트러스트
비로기

유언대용신탁 13년의 노하우
상속 강행의 노하우와 솔루션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 컨설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협력해 드립니다.

1:1 맞춤형 상속설계
상속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으로 상속 설계 및 이행

종합자산 관리 & 운용
상속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하나은행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더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SK telecom

O X T1 페스티벌

역대급 우승이기에 역대급으로 두 번 족니다!



2023 T1 우승 기념

O 청년이 크게 쓴다

T1 우승 기념 특별 경품 이벤트

응모 기간 '23.11.22.(수) ~ 12.10.(일)

참여 대상 만 14~34세 SK텔레콤 개인고객 누구나 응모 가능

당첨 규모 총 5,234명

당첨자 발표 '23.12.14.(목)

경품 내용
 1등 (1명) : Esports의 본고장 미국 서부 여행 상품권(1천만 원 상당)
 2등 (3명) : 삼성 오디세이 아크 게이밍 모니터(300만 원 상당)
 3등 (30명) : 애플 AirPods Max (80만 원 상당)
 4등 (200명) : 문화상품권(10만 원)
 5등 (5,000명) : T1 우승 기념 한정판 T로밍 카드 (2만 9천 원권)

*당첨자 결정 방식은 이벤트 기간 내 응모 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 제공



이벤트 참여하기

T1 우승 기념 팬 미팅

참여 장소 T Factory (SK 텔레콤 홍대입구역 플래그십 스토어)

세부 내용 우승의 주역 T1 선수단과 함께하는 팬 미팅 (참여 방법 및 참여 대상 등 이벤트 세부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자세한 내용은 T 월드 홈페이지에서 추후 확인하세요
www.tworld.co.kr

*상기 프로모션 및 팬 미팅 관련 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에 종교시설 신축…주한미군 평택이전 마무리

서울 용산과 경기도 파주 등에 산재하던 주한미군기지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미 육군 극동공병대는 내년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 장병들의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예배당이 문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미측은 이로써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기지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종결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합의하면서 주한미군 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해 2018년 6월 주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신축된 종교시설

한미군사령부가, 2022년 11월 한미연합 사령부가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마쳤다. 이후에도 평택기지 내 부대시설과 편

의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가 이어졌다는데, 이번 공사로 일련의 과정이 매틈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300석 규모의 새 종교시설은 한국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2020년부터 짓기 시작해 최근 완공됐으며, 지난달 30일 오산 기지에서 예배당을 미측으로 이전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헤더 레비 미 육군 극동공병대 사령관(대령), 윌리엄 맥키번 미7공군 제51전투비행단 사령관(대령), 우리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 최성준 기자



현판식

경남서 작년에만 304명 응급실 뻥뻥이 '응급의료상황실' 가동

'응급의료상황실' 가동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명 '응급실 뻥뻥이' 사례가 경남에서도 매년 수백건씩 발생하는 가운데 도가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응급의료상황실을 본격 가동한다.

경남도는 6일 응급의료상황실 개소를 알리는 현판식을 열었다.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은 환자 이송부터 진료·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 의료 체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환자를 실제로 이송하는 119와 협조해 의사와 병상이 있으면서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환자를 신속하게 보낸다.

이를 통해 응급실 뻥뻥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한다.

경남에서는 최근 5년간 응급실 뻥뻥이 사례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당초 가려고 계획한 병원에 수용되지 못하고 한 차례 이상 다른 병원으로 재

이송된 응급환자는 2018년 162명, 2019년 230명, 2020년 262명, 2021년 216명, 2022년 304명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응급환자 재이송은 전문의 부재(99명), 병상 부족(38명), 1차 응급처치(19명), 기타(148명) 사유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에는 인계과정에서 의료진이 진료 불가 의사를 표명한 경우나 보호자 부재 등이 해당한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이날 진행된 현판식에서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병원장들도 참석한 가운데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상황실의 대응 체계를 직접 보여주는 시연이 이뤄졌다.

경남도는 응급의료상황실 가동으로 응급구조와 의료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의료대응 통합 조정에 나선으로써 응급 의료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전파하고 도민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 한지현 기자

"요소수 개인 판매 중단"…호남 유일 아톤산업에 전화 '봇물'

창고에 요소 소량만 남아 품귀 위기감…중국 요소 수출 통제 영향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요소수를 찾는 화물차 기사, 주유소 사장님의 전화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6일 오전 호남 유일의 요소수 생산업체인 전북 익산의 아톤산업 직원은 점차 만연해지는 요소수 품귀의 위기감을 이렇게 대신했다. 전날에도 화물차 기사, 딜러, 주유소 등의 요소수 구입 문의 전화가 밀려드는 통에 업무가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이 직원은 "요소수가 그렇게 부족한 상황인가"라는 질문에 "부족하다"고 단정했다. 그는 "중국에서 요소 통관, 수출을 통제하면 국내 요소수 생산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직원이 열어준 아톤산업의 창고는 평소라면 창고 절반 이상이 요소로 차 있어야 하지만, 'UREA(요소)

MADE IN CHINA(중국산)라고 적힌 1t 짜리 포대 몇 개만이 벽면에 일렬로 놓여 있을 뿐이었다.

군산항 등 국내 항구에 적치된 아톤산업 소유의 요소가 더 있지만, 이를 다 해도 두 달 치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김경원 아톤산업 부사장은 "우리 회사를 비롯해 전국의 요소수 업체가 보유한 물량으로는 내년 1월까지도 못 버틸 것 같다"며 "특히 산업용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시중에 물량이 있어 지금 당장은 수급에 지장이 없지만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 대변하듯 아톤산업 철제 정문에는 '개인에게 요소수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긴급 안내 공지가 나붙었다.

개인 판매 중단 안내문의 영향과 함께 요소수 부족이 현실화하지 않아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처럼 구매 희망자들이 아동산업 앞에 줄어 서 있는 않았다.

화물차 기사 등이 2년 전 '예방 주사'를 맞으며 얻은 학습효과로 상당량의 요소수를 이미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아톤산업 관계자는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던 때처럼 요소수 수요자들이 (이 상황을) 아직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다"며 "일부 사재기 움직임 등에 차분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도내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주 지역 주유소의 요소수 평균 단가는 리터당 1천410원, 군산 1천258원, 익산 1천341원 등으로 큰 가격변동은 없었다. 공공 차량 등을 운용하는 전북도는 우선 요소수 공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아톤산업과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 노승만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미래를 기대해

KOBC Anniversary 2018 - 2023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5주년

놀라운 도약의 지난 5년, 그리고 더 크고 더 높게 성장해
新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앞으로의 50년을 기대해.



한국해양진흥공사
2030 미래상

01 총 자산
20조원

02 선박금융
공급 1위

03 스마트 해운
물류
통합 플랫폼 구현

04 ESG 공공부문
최우수 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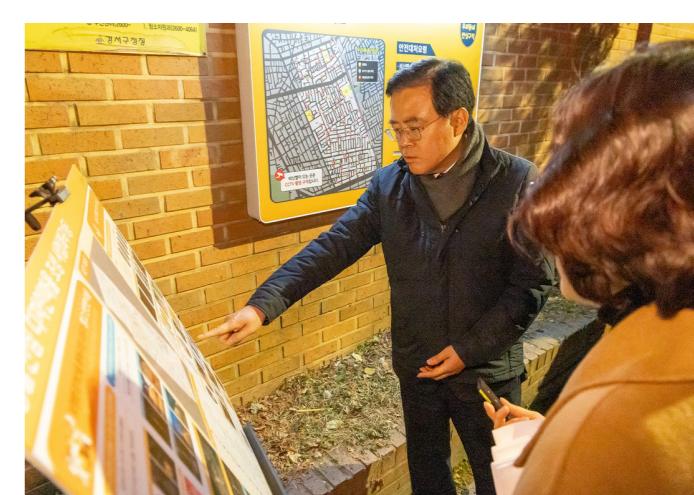
'범죄 안전지대로'…강서구, 화곡1동에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노후화된 다세대주택이 많은 화곡1동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안심 디자인마'로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해 골목길을 환하게 만들었다.

구는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밝고 쉬운 골목길'과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목표로 생활 안심 디자인마을 사업을 추진해왔다. 민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업계획부터 조성까지 모든 단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어두운 보행길 등에 고로저터, 솔라안심등, 비상벨 안내판 등을 설치했다.

또 침입범죄에 취약한 320개 주택 도시가스 배관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특수 조명을 비추면 지문, 벌자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했다. 특히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서울시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을 함께 추진해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지난 4일 저녁 직접 현장을 찾아 방법용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의 작동 상태를 살펴보고, 비상벨을 눌러 관제요원과의 통화 상태, 경찰과의 협업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 오성민 기자

김포골드라인 또 타는 냄새 "심한데도 동요 말라고만"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하는 승객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열차에서 또다시 출근 시간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와 운영사가 원인 조사에 나섰다.

6일 철도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운영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김포골드

라인 열차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 3건이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자 운영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열차에 탑승했다는 40대 승객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풍무역에서 열차를 타고 가는데 코를 찌를 듯한 고무가 타는 냄새가 점점 더 심해졌다"며 "어젯밤에도 오늘보다는 약하지만 비슷한 냄새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는 냄새가 심한데도 운영사는 '동요하지 말고 이용해달라'고 안내 방송을 했다"며 "고촌역부터는 정말 냄새가 심했고 안내 방송에도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열차에서는 지난달 28일 오전에도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 11건이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사는 당시 제동 패드가 손상되면 타는 냄새가 난 것으로 확인했고, 정밀 점검을 거쳐 열차를 다시 투입했다.

운영사는 이날 열차를 다시 차량기지로 옮겨 타는 냄새가 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 장수경 기자

SAMSUNG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위해 연출된 화면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Galaxy Watch6
Classic Golf Edition**

황금장갑 주인공은 누구…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11일 개최

프로야구 KBO리그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선정하는 2023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1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골든글러브 주인공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열린 시즌 KBO리그를 담당한 취재 기자와 사진기자, 중계 담당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에 따라 가려진다.

골든글러브는 투수, 포수, 지명타자를 비롯해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외야수(3명)까지 총 10개 부문 주인공을 선정한다.

수상자는 포지션별 최고 선수를 상징하는 '황금 장갑' 조형물과 함께 500만원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수상을 한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상당의 ZETT 용품 구매권을 부상으로 받는다.

또한 KBO리그 공식 스폰서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선수 맞춤형 자산관리 상

답 서비스와 기념품도 받는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본 행사에 앞서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사전 행사로 막을 올린다.

KBO리그 스폰서 동아오츠카의 2천만 원 상당 유소년 야구 발전 후원 용품 전달식이 열린 뒤 한국스포츠진기자협회가 선정한 골든포토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본 시상식은 오후 5시 10분부터 90분간 KBS 2TV에서 생중계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팬들도 함께한다. 입장권은 6일 오후 2시부터 60분간 KBO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추첨으로 175명(1인 2매 총 350명)을 선정한다.

/ 최준용 기자



리오넬 메시

MLS로 무대 옮긴 메시, 미국 타임 선정 '올해의 운동선수'

올여름 메이저리그사커(MLS) 인터마이애미 유니폼을 입고 미국으로 무대를 옮긴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6·아르헨티나)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의 운동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타임은 5일(현지시간) 2023년 올해의 선수로 메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애런 저지, 2021년엔 미국 체조의 살아있는 전설 시몬 바일스, 2020년엔 미국프로농구(NBA)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 등이 타임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바 있다.

타임은 "메시가 인터마이애미와 계약하면서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 미국을 축구의 나라로 만드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메시의 합류로 관중 수, 입장권 가격,

상품 판매, TV 시청률이 모두 급증한 점 등을 전하며 미국 축구와 스포츠계

에 끼친 영향력을 높이 샀다.

메시는 타임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적 시장을 회상하며 "나의 첫 번째 선택은 바르셀로나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불가능했다.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우디 리그 진출을 고려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사우디와 MLS 모두 내게 흥미로운 옵션이었다"면서 "미국에 적응하기는 매우 쉬웠으며, 지금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평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전했다.

팀이 MLS 플레이오프엔 오르지 못하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메시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잘 회복하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언제나처럼 같은 열망, 특별한 도전과 함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 박성윤 기자



NH농협카드, 프로당구 PBA 팀 리그 9연승 '신기록 행진'

프로당구 PBA 팀 리그 3라운드에서 8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NH농협카드가 4라운드 첫 경기부터 승전고를 울렸다.

NH농협카드는 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컴저축은행 PBA 팀 리그 2023-2024 4라운드 1차전에서 월컴저축은행에 세트 점수 4-3으로 승리했다.

NH농협카드는 주장 조재호가 2승, 오성욱, 김보미, 마민겸(베트남)이 각각 1승씩 합작했다.

조재호는 김현우와 짙을 이룬 1세트 남자 복식에서 서현민-비를 우이마즈(튀르키예)를 11-9로 제압했다. 이어 3세트 남자 단식에서는 서현민을 15-6으로 꺾고 승리 일등 공신이 됐다. 9연승을 달린 NH농협카드는 자신이 보유했던 PBA 팀 리그 최다 연승 기록을 늘렸다.

이밖에 휴온스는 SK렌터카, 하이원리조트는 블루원리조트, 하나카드는 크리운해태에 나란히 풀 세트 승리를 따냈다.

6일에는 에스와이-블루원리조트, 휴온스-크리운해태, 하이원리조트-NH농협카드, 하나카드-월컴저축은행 경기가 이어진다. 7개 구단 가운데 SK렌터카만 휴식일을 가진다.

/ 신재일 기자

체육회, 18일 해병대 입소해 국가대표 강화 훈련



펜싱 국가대표팀의 2019년 해병대 훈련 체험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병대에 입소해 2박 3일간 정신력을 강화하고 2024 파리 올림픽의 결의를 다진다.

6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각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은 18~20일 경북 포항의 해병대 훈련 시설에서 극기 훈련을 치른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재근 전진 국가대표 선수촌장 등 체육회 임원과 각 종목 대표 선수 400명이 입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훈련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대한펜싱협회의 최신원 회장이 펜싱 대표 선수들을 이끌고 해병대 동계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운을 떠자 이기흥 회장이 국가대표 전 종목으로 확대하자고 힘을 보태면서 이뤄졌다.

이 회장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해단식 때

2024 파리 올림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자신을 포함해 국가대표 전원이 해병대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훈련 효과를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구시대적 리더십'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이 회장은 "해병대 훈련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결의를 다지는 의미"라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에 악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제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도 "아직 훈련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극기에 초점을 맞춘 군대 훈련보다 강좌 등을 통한 정신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 오창석 기자

Hi Green
Hi Innovation
Hi Growth
Hi Flex

친환경 에너지로 환경과 사회에 가치를 더하다

그린에너지 Provider로 도약하는
SK인천석유화학과 함께

그린으로 플렉스

Hi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앤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티테크놀로지 SK 어스온

블랙핑크, YG와 '그룹 활동' 재계약···개인은 "협의 중"

신보 발매·초대형 월드투어 가능해져···양현석 "인연 이어가게 돼 기뻐"

걸그룹 블랙핑크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서 '그룹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YG는 6일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블랙핑크 멤버 4인 전원의 그룹 전속 계약 체결의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YG는 이로써 자사 최대 IP(지식재산권)를 지켜내게 됐다.

YG는 공시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블랙핑크와 신중한 논의 끝에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그룹 활동에 대한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블랙핑크는 이에 따라 YG의 지원 하에 신규 앨범 발매와 초대형 월드투어 등의 그룹 활동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는 "블랙핑크와 인연을 이어가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블랙핑크가 세계 음악 시장에서 더욱 눈부시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핑크는 지난 2016년 8월 8일 더블 타이틀곡 '휘파람'과 '붐바야'로 데뷔했다. 지난해 9월 발매한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를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 1위에 올려놓으며 월드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들은 데뷔곡은 물론 '불장난', '마지막 처럼', '뚜두뚜두',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러브식 걸스'(Lovesick Girls), '핑크 베놈'(Pink Venom), '셧 다운'(Shut Down) 등 발표하는 곡마다 흥행시키며 K

팝 간판스타로 부상했다. 지난해 9월 발매한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를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 1위에 올려놓으며 월드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전 세계에서 180만명을 동원하는 K팝 걸그룹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를 성공리에 펼치기도 했다.

블랙핑크는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21억뷰,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가 19억뷰를 기록하는 등 유튜브 영향력에 있어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로 평가받는다. 블랙핑크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9천230만명에 달해 전 세계 가수 1위다.

다만 팀 활동이 아닌 멤버 개인이 전속 계약을 할지는 미지수다.

멤버 개개인이 가수 혹은 배우로 성공적인 활동을 펼친 것은 물론, 글로벌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홍보대사)로 활약할 만큼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 네 명의 '눈높이'를 모두 맞추는 과정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멤버들이 개인으로는 YG를 떠나고 다른 유명 그룹들처럼 '따로 또 같이' 방식을 통해 개인 활동과 YG에서의 팀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제기된다.

/ 이형민 기자



박진영, 소아·청소년 치료비 지원 위해 10억원 기부

가수 박진영이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치료비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기부했다고 5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박진영의 사재로 마련된 이번 기금은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국내 지역 거점 병원 5곳에 각 2억원씩 전달돼 소아·청소년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박진영은 작년에도 삼성서울병원과 국제구호개발 비

정부기구(NGO) 월드비전에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기탁한 바 있다. 지난 2년간 총 20억원을 기부한 셈이다.

그는 전날 서울 강동구 JYP 본사에서

열린 기부 감사패 전달식에서 "자녀를 키우는 아빠가 되어보니 아이들이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치료비까지 부족한 상황이 얼마나 버거울지 생각하면 기슴이 아프다"며 기부 배경을 밝혔다.

박진영은 지난해 고액 후원자 모임인 월드비전 '밥피어스 어너 클럽'(Bob Pierce Honor Club) 회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JYP엔터테인먼트 그룹사 차원의 2020~2023년 기부액은 26억7천만원, 지원 아동 수는 1천523명이다.

/ 신지호 기자

BTS 진 "조기진급으로 현재 병장 멤버들 입대에 눈물이 앞가려"



방탄소년단 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이 지난 7월 상병 조기 진급에 이어 또다시 병장으로 조기 진급했다.

진은 자신의 생일이던 지난 4일 오후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뛰어난 군 생활로 조기 진급 한 번 더 하여 현재 병장 김석진(본명)"이라고 알렸다.

그는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항상 생일에는 라이브로 아미(방탄소년단 팬덤) 여러분과 항상 즐겼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즐기지 못해 마

음이 아프다"며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 하지만, 마음만은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달라"고 적었다.

진은 지난해 12월 팀에서 처음으로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5사단에서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 중이다. 그의 예정 전역일은 내년 6월이다.

진은 "어느덧 제가 입대하고 일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며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그래도 총 시간의 3분의 1만 더 보내면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에 마음이 벌써 두근두근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오는 11일 RM과 뷔, 12일 지민과 정국이 각각 입대를 앞둔 데 대해서는 "시간이 얼른 지나서 멤버들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강동준 기자

임지연, JTBC 사극 '옥씨부인전' 출연···추영우와 호흡



배우 임지연, 추영우

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임지연은 조선의 법률 전문가인 외지부 옥태영을 연기한다. 일머리와 운동신경, 손재주가 매우 뛰어난 인물로, 가짜 이름과 신분으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살아간다는 설정이다.

배우 임지연이 '대박'(2016) 이후 약 7년만에 사극 '옥씨부인전'에 출연한다.

JTBC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옥씨부인전'을 내년 첫 방송하기로 확정하고 임지연과 추영우를 주연으로 캐스팅했다고 6일 밝혔다.

'옥씨부인전'은 이름도, 신분도, 남편도 모든 것이 가짜인 옥태영과 그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 천승희의 이

옥태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천승희는 추영우가 연기한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소설을 낭독하는 전기수이며 사랑 앞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

'푸른 바다의 전설'(2016), '주군의 태양'(2013) 등을 연출한 진혁 감독과 '영클'(2021), '내 생애 봄날'(2014)의 박지숙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 최성희 기자

한석규, MBC 심리 스릴러극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주연



배우 한석규가 1995년 드라마 '호텔' 이후 MBC 드라마에 처음 출연한다. MBC는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가제)'에 한석규를 캐스팅하고 제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 중 방송될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한국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자

신이 수사 중인 살인 범죄와 연관된 딸의

비밀을 알게 되며 겪는 딜레마를 그린 가

족 심리 스릴러극이다.

2021년 MBC 드라마 극본공모전 수상

작으로, 가족관계와 믿음, 의심과 관련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그린다. / 흥자민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해보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우리금융그룹

우리동네엔 천사가 산다

당일 생산한 빵을
복지센터에 기부하는
대림동【빵에빠지다】
김홍기 & 권복동 사장님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동네에 몰래 찾아온 천사,
선한가게 사장님

복지센터에 무료로 빵을 나눠주고
대림동【빵에빠지다】

임신부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고
고덕동【카페 제이】

뇌성마비 복지관엔 세탁으로 재능 기부를.
방화동【미르세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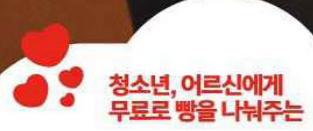
사장님이나눠준 건
음식이나 세탁물이 아닌
따뜻한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금융그룹이 우리동네 선한가게
천사 사장님들을 지원합니다

- 노후된 가게 내/외부 인테리어 교체
- 특별금융지원 및 경영 컨설팅 제공
-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를 통한 가게 홍보
- 봉사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원

우리는 믿습니다
선한 마음은 또 다른 선한 마음으로
이어질 거라고.

‘선한마음이 퍼질지도’에서
우리동네 선한가게를 확인해보세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동네 선한가게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